



목포항구축제



여수거북선축제



함평 국향대전

## 전남도, 지역 대표축제 10선 선정

목포항구축제 · 여수거북선축제 · 함평 국향대전 등

“행·재정 지원 적극 육성해 6000만 관광객 시대 견인”

전남도는 남도의 우수한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2020년 지역 대표축제 10선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전라남도 대표축제는 목포항구축제, 여수거북선축제,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 곡성세계장미축제, 화순국화향연, 강진청자축제, 무안연꽃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장성 황룡강노랑꽃잔치다.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축제 운영, 발전 역량, 축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전통역사, 문화예술, 생태자원, 특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축제로 이뤄졌다. 매력 이 넘치는 ‘관광 전담’을 전국에 알리고 다채롭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역 대표 축제에 대해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로의 육성 및 축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20~2021 문화관광축제에 4개 축제가 선정됐다. 선정된 축제는 보성다향대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정남진장흥물

축제, 담양대나무축제다. 2년간 국비와 국가 지원을 받는다. 10년간 문화관광축제 자리를 지켰던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강진 청자축제는 이를 졸업해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도전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대표축제를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추천할 예정이다. 윤진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축제를 통해 남도의 청정 관광자원과 체험 콘텐츠를 결합,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만들겠다”며 “지속 발전 가능하고 자생적인 축제 육성을 통해 6000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부, ‘아빠찬스’ 등 채용비리 전남대병원 간부 중징계 요구

주 등 채용취소 요구

노조 “병원장 퇴진해야”

교육부가 전남대병원에 채용비리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입사자들의 채용도 취소하라고 병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온 교육부는 최근 A 전 사무국장을 중징계하고 A 씨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 채용취소를 요구했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당시 “A씨가 자격이 없는 조카에게 최고점을 주고, 전남대병원에서 한 달 실습한 게 경력의 전부인 아들 채용 때도 관여했다”며 “안락한 ‘아빠찬스’, ‘삼촌찬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 아들의 여자친구의 채용 사실을 언급하며 “10명의 합격자 중 경력이 단 한 줄 밖에 없는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그게 간부의 아들과 여자친구”라고 덧붙였다.

다. 또 A 씨 아들이 전남대병원에 입사지원했을 때 간부 B씨가 최고점을 줬고, 이듬해 B씨 아들이 지원하자 A 씨가 최고점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폼맛이 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 씨는 보직을 사퇴했다. A 씨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병원 노조가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병원장 퇴진을 촉구했

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삼용 병원장은 채용비리 사태 책임회피, 간호사 체불임금 33억 원 지급 거부, 직장내 괴롭힘 방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거부 등에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 감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전남대병원 측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인을 거부했다.

신봉우 기자



##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292명...노인 60% 넘어

1977년 이후 200명 대 처음

2019년 한 해 동안 전남에서는 교통사고로 29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977년 이후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명대로 줄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292명으로 연령층으로는 노인이 가장 많은 177명(60.6%)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자 사고가 90명, 음주운전 사고 23명 등으로 집계됐다.

도는 2018년 김영록 지사 취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 정책을 집중 펼치고 있다.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185명(52%)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교통약자인 어르신 교통안전에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남도안전화당을 운영중이다.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길거리 버스킹, 기관단체장 릴레이 캠페인,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통단속용 CCTV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 개선 확

충사업비를 두 배로 늘리고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를 추진했다.

그 결과 사망사고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안전 시설 개선 확충사업비는 2018년 150억원에서 2019년 302억원, 올해 385억원으로 계속 늘리고 있다.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확충(과속단속카메라 115개소, 횡단보도 신호등 124개소, 노란신호등 440개소), 안전속도 5030 구역 확대(17개 군), 횡단보도 안전조명 설치(220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54개소)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임채영 도민안전실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근본 대책은 운전자·보행자 의식 개선과 교통법규 준수라는 점을 널리 알릴 방침”이라며 “민식이법 시행 및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 전면 실시에 따른 적극적인 교통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허성은 기자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